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

- 예배 초청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 환영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다함께
- 경배와 찬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함께
- 대표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유영민 집사
- 광고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인도자
- 설교 자유의 삶 (빌 4: 10-13) 이진수 목사
- 결단찬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 다함께
- 축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소서 이진수 목사



헤이워드 침례교회

24742 La Playa place Hayward, CA 94545 Tel: 510-732-9191
Fax: 510-732-1912 교회 홈피: hkb.church

“만족하는 삶” (빌립보서 4:11-13)

하나님을 믿는 성도된 우리가 누리는 행복, 감사, 기쁨, 만족의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처한 상황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전능하심, 사랑하심과 계획을 믿기에 모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참된 만족의 삶은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채워집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 주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 갈 수 있습니다. 만족의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시편 23:1 절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다시 말해서 “나는 만족한 삶을 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이 되고 궁궐 안에서 편하게 지내기 때문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라 사울 왕으로부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광야로, 동굴로 숨어 다니는 가장 힘든 시간, 가장 배고픈 시간, 가장 어려운 밑바닥 인생의 삶을 사는 상황 속에서 고백한 고백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알고 따라가는 사람의 삶에는 만족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족의 삶은 둘째,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를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만족의 삶, 자족의 삶을 살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잘 되시기를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매를 맞고, 끓여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모든 것이 다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다 미워 보이고, 다 짜증나고, 다 원망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원망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통해 풀어 주시고 열어주십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루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 만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소식

1. 환영 -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2. 운영 위원회 - 오늘 오후 1시에 운영

위원회모임이 있습니다.

3. 제직 수련회 - 5/17 토요일 저녁 6시에 제직

수련회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4. 나바호 선교 - 나바호 단기선교가 6/29-7/5에

있습니다.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십시오

5. 성도 동정 - 한국방문 / 장화자 5.10-28

행사 및 모임

5 월	어머니날	5 월 11 일 (주일)
5 월	제직 수련회	5 월 17 일 (토요일)
5 월	각기관 월례회	5 월 25 일 (주일)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

	5/11	518	5/25	6/01
대표기도	유영민	차은희	이강선	심영민
현화성도	서소연	김영란	오양순	손정임
봉사당번	소망구역	소망구역	각기관 월례회	사랑구역

예배출석자 및 현금

지난주 예배 출석	
지난주 현금 통계	

후원 선교지 안내

구역	구역인도자 구역장	연락처	선교사
사랑구역	유경주	510-634-9374	정주환 (소망공동체)
	유경애	925-719-3673	장철호 (미얀마)
믿음구역	심영민	415-205-2631	박완주 (헝가리집시)
	손정임	808-277-1072	K 선교사 (Malaysia)
소망구역	조현숙	510-396-6952	김정림 (탄자니아)
	한영미	510-410-8718	조항권 (우간다)

성경공부

새가족 성경공부	4 주
확신의 삶	7 주
TEE 성경공부-12 주	12 주
설경 통독방	52 주

은혜 속에 사는 삶

사람에게는 수많은 감정이 있습니다. 기뻐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외로워하고, 근심하고, 감격하고 ... 그러나 그 수많은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분명한 기준과 때는 없습니다. 어제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기쁨과 환희 속에 있다가 그 다음 날에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 몇 시간만에 그 감정들이 변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감정이란 것이 어떠한 때는 누구에게 누가 들어도 화날 말을 들어도 아무 일 없는 듯이 지나가기도 하지만 어떠한 때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로 인해서 분노하기도 합니다. 아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끙끙히 잘 참았는데도 어떠한 때는 아주 작은 일도 참지 못하고 터트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세히 살펴보면 나의 감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이나, 상황, 환경, 일이 아닌 바로 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 사람의 말 때문에, 저 사람의 행동 때문에, 저 일 때문에 내 마음에 분노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아픔의 감정이 생긴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이 나를 지배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어떠한 일, 어떠한 말, 어떠한 것일지라도 덮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깊은 물에 돌이 던져져도 아주 작은 파동만 생기고 다시 잔잔히 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 있기만 하면 나의 감정은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흘러나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체험합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이 내 원대로 변하고, 대해 주기를 바라고, 상황이 내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자세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삶에 힘쓰는 것이 바른 자세임을 깨닫습니다. 요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돌아보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Worship services & Meetings*

주일대예배 <i>Sunday Main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본당 <i>Main Sactuary</i>
어린이예배 <i>Sunday Children's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유치부실 <i>Children's Room</i>
영어예배 <i>Sunday English Service</i>	오전 10 시 30 분 <i>10:30 A.M.</i>	영어부예배실 <i>English Service Room</i>
주일성경공부 <i>Sunday School</i>	주일오후 12 시 <i>12:00 P.M.</i>	유년부실 <i>Group Class Room</i>
새벽기도회 <i>Morning Prayer Meeting</i>	매일 화-토 6 시 <i>Daily T-Sat 6 a.m.</i>	본당 <i>Main Sactuary</i>
구역모임 <i>Local House Meeting</i>	매 월 <i>Monthly</i>	구역별 각가정 <i>Local church member's home</i>

섬기는분들 *Church's Servants*

담임목사:이진수 <i>Sr. Pastor: Timothy Y.</i>	510-415-0671	timjdsn@gmail.com
Youth Ministry: Erik & annie Komoto	951-295-4769	Erik.Komoto@gpmail.org
어린이교회: 이은진 <i>Children's Ministry: Joy Song</i>	510-415-1696	Ejoysong@gmail.com

교회약도 *Church Map*

